

쌀·소고기 지켰다지만...전남 농민들 “안심하긴 이르다”

미 “시장 개방 합의” 주장 농민 불안 여전...비관세 해제 압박 여지
농업계 “식량 주권은 타협 대상 안돼”...후속 세부 협상 지켜봐야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일단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최대 농도인 전남 농민의 불안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후속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를 명분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가 재차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타

결된 한미 양국 무역 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달러의 투자(총 3500억 달러)·구매(1000억달러) 패키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이미 부과 중인 25%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미 양국은 그간 쟁점이던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일단 남겨두고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추자는 개괄적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협상이 협상의 최종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한 것이 아닌 앞으로의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틀과 방향성을 마련한 '프레임워크' 합의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향후 세부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한우 사육지인 전남의 경우 미국이 세부 협상에서 또 다른 유형의 농축산물 개방 등을 압박할 경우 그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언급했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우리 정부가 “쌀을 포함한 농산물 분야에서는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양측 발표 간 온도차는 지역 농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일단 이번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역 절차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농업계는 여전히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협의가 남아있는 만큼 책임 있는 후속 협상을 이

여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국한우협회도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미국측이 우리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축소와 시장 개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를 문외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협상 과정에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집회 사진까지 제시하며 한국 농업의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옥수수 수입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2분기 소매판매 감소폭 3년 만에 최소...소비 살아나나

7월 소비쿠폰 반영되면

14분기 만에 증가할 수도

역대 최저기간 마이너스인 소매판매가 최근 감소 폭을 줄이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분기 소매판매 감소 폭이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하반기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이 반영돼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101.8(2020년=100.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13개분기째 감소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2023~2024년 1~3%

대의 가파른 감소세와 비교하면 올해 2분기는 사실상 '보합'에 가깝다는 평가다.

실제로 2분기 소매판매 감소 폭은 내수 부진이 시작된 2022년 2분기(-0.2%) 이후 가장 작았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부진은 2022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본격화했고 작년 2분기 3.1% 급감하면서 절정을 찍었다.

팬데믹 당시 일명 '보복소비'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작년 10월과 11월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반전이 예상됐지만 곧이어 12·3비상계엄, 제주항공 사고 등의 충격으로 연말 소비 심리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 결과 작년 4분기 소매판매는 2.0% 줄며 전분기(-1.5%)보다 더 후퇴했다. 올해 1분기엔 -0.3%로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소매판매지수(99.4) 자체는 100을 밑돌았다. 소비 수준이 기준

연도인 2020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발급된 소비쿠폰 영향은 2분기 지표에만 영되지 않았다.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소비의 다른 한축인 서비스업 생산도 2분기 1.4% 늘어 호조세를 보였다. 작년 2분기(1.6%) 이후 1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통상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는 서로 번갈아 늘거나 줄면서 상호 보완하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는 동시에 개선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5월까지 소비가 극단적으로 침체한 기간이었던 만큼 앞으로 소비가 회복될 여지는 충분하다”라며 “소비쿠폰도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TenTen명중 외화정기예금’ 판매

세계 양곡 선수권 성공 기원

광주은행은 “오는 10월 31일까지 ‘TenTen명중 특판 외화정기예금’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시 판매는 ‘광주 2025 세계(장애인) 양곡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광주은행이 후원하는 ‘TenTen양곡단’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불확실한 금융 환경 등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급증하고, 외화예금에 대한 고객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은행은 이에 발맞춰 최고 연 0.40%포인트(p)의 우대금리 및 다양한 환율 및 수수료 우대를 담은 특판 외화정기예금상품을 내놴다.

‘TenTen명중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가입금액은 1000달러 이상, 가입기간은 6개월과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총 판매 한도는 1000만 달러

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6개월 가입 시 기본금리 연 3.84%에 우대금리 최고 연 0.40%p를 더해 최고 연 4.24%를 제공하고, 12개월 가입 시 기본금리 연 3.70%에 우대금리 최고 연 0.40%p로 최고 연 4.10%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양곡대회 유치기념 가입 고객 전체 연 0.10%p, 스마트뱅킹과 모바일월 등 비대면채널로 가입 시 연 0.10%p, 원화를 달러로 전액 환전해 가입 시 연 0.20%p 등이다.

이 밖에 예금 신규 또는 만기 해지 시 환율 스프레드 50% 우대, 만기 해지 금액을 해지 당일 해외송금 시 송금 수수료 50%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TenTen명중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곡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여름 휴가철 다양한 수영복 만나 보세요”

광주신세계 ‘르브아시스(REVOIRSIS)’ 팝업에서 고객들이 다양한 수영복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본관 5층에 르브아시스 팝업을 열고, 오픈 이벤트로 구매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을 담을 수 있는 리유저블백과 짐백을 선착순 증정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SWIN ONEPIECE’와 ‘BRALATTE’ 등이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위반

121억원 이행강제금·검찰 수사

아시아나항공이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광주·제주,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달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행강제금 총 1008억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외국인, 지난달 코스피 6조원 ‘쇼핑’

17개월만에 최대...절반 삼성전자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순매수액이 1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810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순매수액 기준 지난해 2월(7조858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 6월 순매수액(2조6930억원) 대비로는 2.3배에 달한다.

지난해 1월 3조5000억원 수준이던 외국인 순매수액은 2월 7조8000억원대까지 급증했으나, 점차 줄어들며 같은 해 8월 ‘팔자’로 돌아선 뒤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 5월 1조원가량 순매수하며 ‘사자’로 전환한 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지난달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유입된 데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외국인이 지난달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3조4950억원어치를 담았다. 이는

같은기간 코스피 전체 외국인 순매수액의 56%에 달한다. 한미 협상 수혜 기대감에 조선주인 한화오션도 8580억원 담으며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다.

뒤이어 SK스퀘어(4570억원), 이수퍼타시스(3290억원),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2490억원) 등 순으로 많이 담았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지난달 5.7% 상승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달부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 등에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주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증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실적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단기 과열 해소가 필요할 것이다. 8월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8월 코스피 하단을 2900포인트, 상단을 3300포인트로 제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가운데 향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증기중앙회, 광주·전남 폭우 피해 기업 지원

2년간 2000만원 한도 무이자 대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분부는 “최근 역대급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노란우산 가입자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2년간 무이자 부금 대출(2000만원 한도)을 이용할 수 있다.

광주에서 제조업을 하고있는 A씨는 기존 일반

대출(1900만원)을 재해대출(무이자)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었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공제금을 지급받아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

증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수해 피해 가입자에게 2%p 대출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운영 중이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이번 지원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지난달 최대전력 수요 85GW...7월중 최대

지난달 평균 최대전력 수요가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3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대전력은 85.0GW(기가와트)로 작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한다. 지난달 수치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올해까지 33년간 월평균 최대 전력수요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8월(87.8GW)의 96.8% 수준으로 근접했다. 지난달에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8월 오후 6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95.7GW)가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기상청의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지난달 총 15일로 집계됐다. 집계가 시작된 1973년부터 올해

까지 53년간의 7월 평균 3.4일의 4배를 웃돌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8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15	17	23	27	36	31
등위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2,073,966,000				13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8,843,403				92
3	5개 숫자일치	1,240,297				3,623
4	4개 숫자일치	50,000				169,030
5	3개 숫자일치	5,000				2,680,548